

초소형 전기침 치료기 나왔다

KAIST 연구팀 '스마트 침 시스템' 개발

편리하고 과학적인 '초소형 스마트 침 시스템'이 KAIST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.

KAIST(총장 서남표)는 전기 및 전자공학과 유회준 교수 연구팀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500원 동전 만한 크기의 '초소형 스마트 침 시스템'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.

유 교수팀이 개발한 전기침 치료기는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치료기보다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지녔으며 가격은

기존에 비해 1000분의1도 안되는 것이 특징이다.

전기침은 질병치료 등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지방분해 등 비의료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.

연구팀이 개발한 '스마트 침 시스템'은 자체 개발한 직물형 인쇄회로기판 (Planar·Fashionable Circuit Board, P-FCB)을 이용해 몸에 직접 붙이는 패치형으로 만들어 초소형화를 실현하면서 복잡한 선 연결을 없앴다.

권은남 기자 silver@